

水營農廳 農謠 및 놀이

(釜山市 地方無形文化財 第2號)

社團
法人 水營古蹟民俗保存會

水營農廳놀이

種別：釜山市 地方無形文化財

指定番號：第2號

指定年月日：1972年 10月 20日

分野：農謠 및 놀이

所在地：釜山市 南區 水營洞

管理者：社團法人 水營古蹟民俗保存會

藝能保有者：

姓名	性別	生年月日	保有種目	指定年月日	備考
太末俊	男	1900.8.3 ~ 1977.6.6	김매기노래先唱	1972.10.20	1972.6.6 作故
李也粉	女	1904.9.10 ~ 1978.	모내기노래先唱	1972.10.20	1978.7.24 作故
金佑根	男	1928.4.5	김매기노래	1978.9.13	
尹文順	女	1912.1.25	모찌기노래	1978.9.13	
都泰一	男	1923.6.20	악사및김매기노래	1980.2.12	
孫基柱	男	1926.8.9	악사및김매기노래	1980.2.12	
金基泰	男	1933.3.5	김매기노래	1980.2.12	

水營農廳農謠 및 놀이

考證 東亞大學校教授 康 龍 權

1. 유 래

수영은 1579年(宣祖 25)부터 1894年 甲午更張까지 慶尙左道水軍節度營이 있던 곳이며 수영강을 끼고 해변에 자리잡고 있는 비교적 대집단공동체의 자연부락이었다. 8·15 광복 당시 약 350호에 1,700여명의 수영동민은 거의 전부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966년에 이르러 720호중 농가는 178호에 불과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130호로 격감되어 농청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며 점차 농토는 대지로 변하여 현재는 농가는 1가구도 없는 도시로 되어 버렸으나 수영동민들의 향토문화 애호의 정신으로 전통적인 농청 농요를 전승하고 있는 것이다.

대대로 농업을 위주로 생활해 온 수영 사람들은 약 100여년 전부터 농촌공동작업을 조직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인 농청이 있었다고 하지만 더 옛으로 소급하여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사 고대편(震檀學會刊, 1970)에 의하면, 原始共同體에서 전래된 遺制로 보이는 두레가 중부 이남지방에 있었는데 頭領을 座上 또는 領座라 했고 幹事役을 公員이라 했으며 두레의 표지기가 있고, 유흥으로 농악이 있었으니, 이것은 촌락 단위의 자치조직으로서 부락의 경제·군사·노동단체이며 또 경기 내지 유흥단체로서 공동체적 생산과 협동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청은 三韓時代 두레의 유평이라 생각되므로 농청조직은 비단 수영에만 있던 것은 아니지만, 수영농청은 1960년대까지 존속되다가 해산되었다고 한다. 농청의 조직과 제도는 부락의 자치단체이기는 하

지만 면밀하며 규율은 엄정하여 농촌공동체의 생활을 조직화하고 농사기술의 습득과 생산능률의 향상은 물론 조직을 통한 협동·애향심을 함양 고취하였다.

농청원은 노동력이 있는 성년 남녀이며 所任으로서는 執綱(대표), 行首(농사 총감독), 문서잡이(서무, 회계), 集講(농사계획 작성, 강의), 野長(작업의 지도·감독), 令角手(신호수)가 있다. 동·서농청 산하에 內房廳과 模技廳이 있는데 내방청은 성년 여자로 구성되며 행수, 集講, 야장이 있으며, 모기청은 미성년자로서 구성되며, 그 기구는 농청과 같으니 앞으로 농청원이 될 예비훈련 집단이다.

농청원은 중노동을 위주로 하며 내방청원은 발농사를 중심으로 하며, 모심기철에는 모찌기, 모내기 기타 잔일에 동원되는 것으로 농촌공동체의 남녀는 모두 참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데 만일 어기게 되면 곤장으로 다스리고 심하면 추방했다고 한다.

수영농청놀이는 이같은 조직과 규율속에서 농사일을 해가는 과정, 특히 논농사의 작업을 반영한 것으로, 모찌기, 모내기, 김매기의 농요가 중심이 되고, 보리타작과 소(쇠) 싸움을 곁들여서 흥을 돋우는 농민의 순박한 생활을 표현한 향토예능으로서 농청이 사라진 이즈음에도 1972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옛 일과 슬기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2. 절차

수영농청놀이의 순서는 令角手의 집합신호에 의하여 남녀 농청원이 각자의 농기구를 가지고 집합한다.

농악대를 선두로 農牛 두 마리를 앞세우고 농청원이 춤을 추며 일터로

나간다.

남자들은 논에서 흘진 (쟁기질) 을 하고 나서 서레 (씨-리) 로 논바닥을
고루며 가래질을 한다. 한편 내방청의 여자들은 모판에서 모를 뽑는다. 이
때에 모찌기노래를 부른다.

내방청원이 주가 되어 모를 심으며 모심기 (모 내기) 노래를 부른다.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도리깨로 보리타작을 한다.

흥겨운 점심참을 즐긴다.

남자들이 김매기노래를 부르며 논김을 맬 때 내방청원은 논두렁의 풀을
뽑는 등 잔일을 한다.

동·서농청이 갈라져서 소싸움을 붙이고 나서 농악놀이를 놀다가 돌아간
다.

3. 내 용

농청놀이의 내용은 농악, 농요, 소싸움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농 악

농청의 농악은 쟁과리·징·북·장구 등의 토속적인 악기의 가락에 맞추
어 농청원이 일터로 갈 때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의 행진악과 작업의
시작과 끝났을 때, 또는 휴식할 때, 그리고 간단한 고사와 유희적 오락
때에 울린다.

여기에 부연해 두어야 할 것은 영각[땡갈] 이다. 땡갈은 1.5m정도 길
이의 대롱 앞쪽에 소뿔이나 낫쇠로 만든 나팔을 단 악기로 여러 가지 신
호를 알린다.

(1) 집합 : 동서남북을 향하여 한 번씩 길게 울린다.

(2) 작업시작 :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씩 두 번 울린다.

(3) 점심이나 휴식 : 짧게 세 번씩 올린다.

(4) 작업끝 :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씩 두 번 올린다.

(5) 비상신호 : 길게 한 번씩, 짧게 세 번씩 연거퍼 올린다.

나. 농 요

민요로는 모찌기노래, 모내기노래, 김매기노래 및 보리타작소리가 있는데 이같은 농요는 機能謠이니만치 직접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것이다. 歌唱民謠와는 달리 노동의 독작을 하면서 불러야만 그 진미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구태어 동작을 곁들이는 것이다.

(1) 모찌기노래

1 행이 3~4 음절 4 구로 된 2 행시가 1 장을 이루고 앞소리와 뒷소리로 分唱하니 앞소리는 독창이고 뒷소리는 제창이다. 가사의 내용은 모를 뽑는 작업에 대한 것과 작업과는 무관한 것 등이 얼마든지 연결되니 다음과 같다.

◇ 모 찌 기 노 래 ◇

- | | |
|--------|-----------------------|
| 1) 앞소리 | 일월이 돌아와도 이슬겉줄 모르더라 |
| 뒷소리 | 매화때를 꺾어들고 이슬털로 가자시라 |
| 2) 앞소리 | 한강에 모를부아 모찌기도 난감하네 |
| 뒷소리 | 하늘에다 목개 갈아 목개따기 난감하네 |
| 3) 앞소리 | 한재야 한섬 모를부어 잡싸래기 절반이네 |
| 뒷소리 | 성안성밖 첩을두니 기생첩이 절반이네 |
| 4) 앞소리 | 바다같은 이뭇짜리 장구판만 남았꾸나 |
| 뒷소리 | 장구판은 종구만은 장구떨니 누웠든고 |
| 5) 앞소리 | 미치라 다치라 모두잡아 흘치라 |
| 뒷소리 | 영혜 영천 초산에 호미손만 놀이소 |

- 이하 생략 -

(2) 모심기노래

모심기도 주로 내방청원이 부르는 노래로서 형식은 모찌기와 같이 4음절 4구 1행이 앞뒤로 이어지는데, 이것 역시 선창은 독창으로 메기고 후창은 제창으로 답한다. 가사의 내용은 작업과 직결되는 것도 있지만 작업시간이 많으므로 넓은 생활상을 반영하기도 하며, 또 즉흥적 작사도 있을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가) 앞소리 이논에다 모를숨아 금실금실 영화로다.

뒷소리 우리부모 산소등에 술을심어 영화로다.

(나) 앞소리 서울이라 남정자야 점심참이 늦어오네

뒷소리 미나리야 스금초야 맛본다고 더디드나

(다) 앞소리 살에질고 장창발에 목캐 따는 저 처녀야

뒷소리 목캐꽃은 제 색인데 처녀얼굴 철색이네

(라) 앞소리 저게가는 저구름은 우연신선 타고가네

뒷소리 대국이라 천자국의 노든신선 타고가네

(마) 앞소리 서울이라 왕대발에 금비들기 알을나야

뒷소리 그알한개 주았으며 금년과게 내 할꾸로

(바) 앞소리 머리좋은 수담처녀 올뽕난게 앉아우네

뒷소리 올뽕들뽕 내 때주마 백년살이 내 칸살자

(사) 앞소리 주천땅앞을 지나치니 아니먹어도 슬내난다.

뒷소리 약주떠고 청주떠고 굶화정자로 놀러가자

(아) 앞소리 알금살금 뽕은독에 놀어뒀다 금천주야

뒷소리 팔모깎은 유리잔에 나비한쌍 잔질하네

(자) 앞소리 담잔안에 심은화초 담밖에 후아넘네

뒷소리 질로가는 호걸양반 그꽃보고 질안가네

(차) 앞소리 맹화야 녀들 끝에 후여하는 저새보소

뒷소리 네아무리 후여한들 님본새가 날아갈까

- (가) 앞소리 모수야 적삼안섭안에 분통같은 저젓보소
 뒷소리 많이나보며는 병나는데 담배심만큼만 보코가소
- (타) 앞소리 서울이라 유담안에 해달뜨는 기경가자
 뒷소리 상주땅 흥골못에 잉어노는 기경가자
- (파) 앞소리 서울갔든 선부네야 우리선부 안오드나
 뒷소리 오기야 오지만은 칠성판에 설여온다.
- (하) 앞소리 사공아 배돌려라 우리동생 보러가자
 뒷소리 너거동생 무슨죄로 절도섬에 기양갔노
- (게) 앞소리 해다지고 저문날에 우연행상 떠나가네
 뒷소리 이태백이 본처죽고 이별행상 떠나가네
- (네) 앞소리 오늘해가 이만하면 산골마다 연기나네
 뒷소리 : 우리부모 어디가고 영기넬줄 모르는고
- (더) 앞소리 : 어물께 저물께 허러놓고 주인양간 어디갔노
 뒷소리 무녀야 대점복 손에들고 첩의집에 놀러갔네
 - 이하 생략 -

이 모심기노래는 아침·중참·점심·석양등 때에 따라서 그 가사와 가락의 차이가 있다.

(3) 김매기 노래

논김을 맬 때 부르는 소리로서 남자들의 민요이다. 북을 세번 울리면 일제히 “에이 에이” 두 번 하고, 앞소리가 “에~헤~아~아~”하면 뒷소리도 그와 같이 외친다. 앞소리가 한 귀절을 부르면 뒷소리는 “에~헤~아~아”의 후렴을 제창한다. 가사의 내용은 작업과는 무관하고 수영팔경을 중심으로 향토의 풍정을 나타내고 있으니 논김매기일은 남정네로서도 매우 힘이 드는 것이어서 흥겹고 구성된 소리로써 고됨을 달래주는 것인데 일을 마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부른다.

앞소리 에~헤~아~아~

뒷소리 에~헤~아~아~

- (가) 양운폭포~기른구름~해운모아~돌아드니 온정리는~명승지요
가인제사~놀뜬데요~해운대 동백섬은~고운선생~놀뜬데요
- (나) 장산 ~ 최고봉은 ~ 흑운찾아 솟아있고 ~ 가마산하 절명도는
창해 뼈가 놀아 있다.
- (다) 감모진 최영문에~해마다 봄이오고~포이만호 전선터에
임자없는 빈배들이 ~ 말만가득 실어있다.
- (라) 석양비긴 양창로로 ~ 신선대 찾아가니 ~ 신선이 양재호로~
빈배흘로 뿐이로다.
- (마) 망경창과 십리에~날아오고 놀뜬백구~황혼에 집을찾아~
민락교변 갈대밭에 ~흰빛으로 날아든다.
- (바) 청산을 하일배하고 ~ 운리에 득명이라 ~ 반락창해 하였으니~
초수어웅 상옹호라~ 꺼꾸러져 금두어악이 장관이다.
- (사) 일평 서경월에 ~요란한 모애성은 ~혜왕성 정막을 깨트리고~
규중에 수탑소리~새벽을 보하는데 ~서창하여 비둥이요~
북창외에 흥아여라
- (아) 금연산 꽃봉속에 ~마하반야 천년고찰 ~석가여래 자비심은~
고금에통하여라 ~옥여봉탕 금성이 ~배안에 잔잔하다.
- (재) 이내한몸 무슨팔자로서 ~온여름 더운날에 ~무슨팔자
죄로지아 ~ 진풀밭에 이런고생하고 있나

※ 김매기 끝맺음
 앞소리 앞두름에 행수님네 (뒷소리 같음)
 앞소리 뒷두름에 집강행수
 뺑뺑 돌아돌아 갔소 (뒷소리 같음)
 돌가지 돌가지 삼을사소
 오~아 에이 ~ 슬기여
 뒷소리 오~아 에이 ~ 슬기여
 앞소리 오~오 ~ 슬기여
 뒷소리 오~오 ~ 슬기여

다 보리 타작소리

수영지방에서는 二毛作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내기철에 보리타작으로 바뀔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심기와 더불어 도리깨타작을 하는데, 가락은 음보격으로 단조롭고 빠르며 가사는 다음과 같다.

◇ 보 리 타 작 소 리 ◇ (密陽地方)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앞소리>
이보리가	옹헤야	이보리가	사방붓들
늪보리고	"	늪보리고	우리농촌
양반의	"	중놈의	보기 좋다.
보리인가	"	보리인가	때려도고
수염도	"	몽골기도	땀을혈제
길구나	"	하구나	식량된다.
점잖기도	"	동해동쪽에	띠끌모아
하구나	"	듣는해가	식량된다.
	(以下同)	(中略)	<以下省略>

◇ 도 리 깨 타 작 소 리 ◇

<앞소리>	<뒷소리>	<앞소리>	<앞소리>	<뒷소리>
에화	어화	어화	궁덩이는	엇쥬
어화	"	이삭을보고	모우고	"
때려라	"	때리라	도리깨는	"
보리보고	"	도리깨로	벌리라	"
때려라	"	돌리잡고	뒷걸음을	"
이색이	"	깨단을보고	쳐라	"
안불거로	"	때리라	보릿대가	"
야무치기	"	어화	나간다.	"

보리타작이 한창일때는 뒷소리를 엇쥬 엇쥬로 받는다. (以下省略)

라. 소싸움과 판굿

고된 김매기를 끝낸 농청원들은 동부농청과 서부농청으로 나뉘어 소싸움을 붙여서 승부를 가리는 놀이를 한다. 소싸움은 오락적 경기라고 하겠으나 목축을 권장하는 의의도 아울러 가지는 놀이이다.

승부를 가린 다음에는 다 함께 和同하여 신나게 노래와 춤으로써 한바탕 즐기는 판굿으로 끝을 맺는다.

4. 의상과 도구

의상은 바지, 저고리, 치마 등 농민의 평복에 수건을 쓰며, 삿갓과 도롱(우장) 이를 준비한다. 그리고 두 마리의 만든 소를 동원한다.

도구로서는 논을 가는 쟁기(홀진), 씨레(씨~리), 가래를 비롯하여 지게, 호미, 삽, 갈퀴, 도리깨, 풍석, 고무래(밀개) 등이며 기타 식사에 필요한 가사도구이다.

악기는 팽과리, 징, 북, 장구 및 영각이다.

5. 특징 및 가치성

전통적 민요 중에서도 농사노동요의 비중은 가장 크다. 그러나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농경의 방법이 변천함에 따라 재래의 민요는 거의 인멸되고 있는 형편이다.

도시집중의 현상에 의한 농촌공동체의 붕괴와 더불어 민요는 물론 농사민속이 급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완전히 도시화된 수영동에서 농청농요를 보존 계승한다는 것은 민족문화 전승에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수영농청놀이의 전승은 농사에 관한 민속적 유산의 계승이며 농요는 농청의 공동체생활의 적나라한 표현이니 만치 놀이의 양상을 녹화하고 민요는 악보를 만들어 길이 보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